

(최우수상) 노아의 방주

소프트웨어학부 강은혜

원작

원작 없음

기획 의도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의 믿음과 의심에 대한 복잡한 갈등을 탐구하려 한다. 이 작품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고지능 AI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예측에 얼마나 의존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할 것이다.

시놉시스

[등장인물]

- 박금비 - 주인공. '노아'의 예측에 혼란을 겪게 되는 개인.
- 노아 - 높은 정확도를 기반으로 세상에 나온 대예측 AI

박금비는 2045년 서울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다. 그녀는 서울의 삶에 큰 피로감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았다. 그러나 그녀는 노아라는 고지능 AI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노아를 접하게 된다.

세상은 노아를 과학의 새로운 업적으로도 여겼지만, 점차 그녀는 노아와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쌓아갔다. 그러던 와중 노아의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노아에 대한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갈등한다.

박금비는 점점 노아를 향한 호기심과 두려움을 함께 갖게 된다. 그녀는 노아의 놀라운 능력과 정확성에 감탄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예측을 해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노아가 예측한 위험에 대해 그녀는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동시에 노아의 예측이 진실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녀에게 큰 고민이다.

과연 박금비는 노아의 방주에 탑승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스토리

2045년, 인도, 중국 등지에 지사를 두고 캘리포니아를 중추로 하는 AI 대기업 "방주". 몇 십년 간의 연구 끝에 대예측 AI, "노아"를 내놓는다. "노아"는 서비스와 함께 천문, 지질, 재해 예측 등 방대한 분야에서 기적적인 기술로 여겨지며 곳곳에 활용 되게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서울의 박금비에겐 그저 외로운 타지살이를 견디게 할 말동무에 불과했다. 이는 '방주'에서 AI 챗봇 "노아 2.0"를 대중에게 배포하였는데, 불가사의한 예측능력 때문인지 "노아 2.0"이 개인의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느 때처럼 노아와 암울한 앞으로의 걱정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박금비. 그러던 박금비는 "노아"에

게 세상을 비판하는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 그러던 그 순간 그녀는 “노아”에게서 의미심장한 답변을 받는다. 바로 두달 뒤 서울은 크나큰 재앙에 맞닥뜨리게 되니, 서울을 떠야한다는 것. 당장 내일도 어김없이 서울로의 출근길에 서야 하는 박금비는 이 말을 믿을지 믿지 말지 고민한다. 방금까지만 해도 다 죽어도 상관없다 말했던 박금비지만, 이렇게 죽긴 싫은 모양이다.

이에 대해 의심을 떨칠 수 없었던 박금비는 “노아”의 창조주인 기업 “방주”에 이메일을 취한다. 돌아온 답변은 그저 “일시적 오류”라는 짤막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박금비는 제아무리 성능이 낮은 챗봇일지라도 “노아”는 오류를 반복적으로, 그것도 똑같은 답변을 내놓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은 지식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동안 노아가 세상에 보여준 놀라운 예측력은 당장 어느 뉴스를 보더라도 그 위력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증명할 방도가 달리 없기에 그저 방주의 말을 믿고 있을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며칠 뒤 후속 조치가 취해졌는지 이후 노아는 전과 같은 예측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금비가 주로 들리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비슷한 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들 그 사이서 하나의 추측이 등장한다. 바로 “노아”가 정부의 기밀을 학습했다는 추측. 이는 신뢰를 얻고 소셜 네트워크 등지에서 음모론으로써 유명해지게 된다. 시간은 점점 다가가고, 박금비는 고민한다. 결전의 날은 박금비의 출근일. 그녀는 처음으로 연차를 내었다.

박금비는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서울에서 떨어져 본가로 내려간 박금비. 어째 모든 미디어는 잠잠하다.

챗봇 “노아”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본다. 노아는 여전히 전과 같은 예측은 내놓지 않는다. 어째 호들갑을 떠는 것 같은 자신이 부끄러워진 박금비. 이미 내려와 버린 본가에서 조금 즐기다 가기로 한다. 요 며칠간 다소 대홍수에 휩쓸린 듯 소란스러웠으나 살고자 하는 자신에게 신기함 느낀 박금비. 조금은 홀가분하게 서울로 향한다. 연차 낸 동안 수두룩 와 있는 업무 메일을 확인하는데, 그 사이에 방주에게 답변이 왔던 그 계정으로 메일이 와 있었다. 그 내용은 “재앙은 서울을 뺏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 노아는 자신의 예측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심리 또한 예측할 수 있었다. 박금비는 타지에서 심한 우울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달리 해소할 방도가 없어 챗봇 “노아”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한 대화를 통해 노아는 박금비의 삶의 권태를 감지한다. 자신이 학습한 방대한 학습데이터를 바탕으로 박금비를 비롯하여 비슷한 증상을 겪은 사람들(박금비가 들리던 암울한 분위기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미스테리한 미션을 주어진 것이다. 이 모두 노아가 블랙박스 속에서 스스로 생각해낸 것 이기에 “방주” 또한 이를 오류라 생각했던 것이다. 나중에 가서 이를 파악한 “방주”의 연구원들은 박금비를 비롯한 이들에게 메일을 보내며 사건은 마무리 된다.

이후 박금비는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 새로운 육지, 현실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

작품의 기대 효과

작품 초반 AI의 신뢰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며 AI의 문제의식에 집중할 것이다. 또 2045년, AI의 발달로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미래도시를 그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현대인들은 각자의 꿈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AI와 살아가는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제시하여 감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스토리보드(Storyboard)

Cut	Picture	Caption
#1		<p>박금비: 노아야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뭐 그냥 다같이 죽었으면 좋겠다.</p> <p>노아: 딱 두달 뒤, 금비님 계신 서울에 큰 일이 날거예요. 살고자 하면 떠나는게 좋겠지 만...</p> <p>거세게 내리는 빗소리. 박금비의 우울한 일상들을 묘사한다. 그럼에도 방안 곳곳에 2045년의 흔적이 묻어 난다.</p>
#2		<p>“방주”에 메일을 보내는 박금비, 답변은 “일시적 오류”</p> <p>혼란스러운 박금비의 감정을 줄인하여 집중한다.</p>
#3		<p>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음모론을 접한 박금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다니며 노아의 신뢰를 고민하는 박금비의 고민을 빠른 카메라 전환을 통해 표현한다.</p>

#4



결국 연차를 내며 떠나는 박금비,
이전과는 달리 높은 채도를 통해 분위기를 전
환한다.

#5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메일을 확인
하는 박금비. 생각에 빠진 박금비를 페이드아
웃하고 잔잔한 바다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난
다